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음 5월 22일) 제18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 24일 개막... 북한도 참가

꼭 막혔던 남북관계, 태권도로 빗장 푼다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원(무주군 설천면 위치)에서 개최된다. 15일 전북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개원 3년차인 태권도원을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태권도가 2024년 하계올림픽 핵심 종목으로 선정되고 더 나아가 올림픽 종목으로서 영구화될 수 있도록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회원국, 최

역대 최대 회원국·최대 선수단 참여 북한 ITF 시범단, 개폐막식 참가 확정

대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6월 9일까지 WTF 회원국(208개국)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183개국 1,768명(선수 973, 임원 795)이 참가 신청해 2년 전 러시아 대회 당시 기록(139개국 1,458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회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태권도원을 전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인식시키고, 한류열풍의 원조인 태권도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태권도의 의식과 예절교육, 고단자 수련 및 소통 공간인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고 다양한 태권도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 개폐막식에 북한 ITF시범

단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돼, 2007년 이후 중단됐던 남북 태권도 교류가 재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TF 시범단은 개막식 공연과 폐막식 남북 합동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6월 23일 입국하여 국내일정을 소화한 후 7월1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토마스 바흐(Thomas Bach, 독일) IOC위원장은 물론 위자이 칭(于再清, 중국) 부위원장 및 IOC위원 10여명, 주한 각국 대사 3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태권도 종목뿐만이 아닌 국제 스포츠 리더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스포츠계 유명인사들의 전라북도 방문을 계기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한류 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3,500만명의 관광객 유치목표로 이번 대회 참가 선수, 임원 및 대회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태권도원, 장수승마장, 한옥마을, 새만금 등 도내 관광지를 연계하여 셔틀버스 및 기차여행 상품 판매 등을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17일까지 강경화 채택해달라”

국회에 사실상 최후통첩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17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 재요청을 했다고 확인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10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부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달라. 외교적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드러냈다. /뉴스시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의무화해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오전에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주택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부동산·주택정책의 대전환의 신호탄과 이후 주무장관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는 “후분양제에 전향하면 돈 없는 소비자가 대물림 집사가 되는 부담이 있고 건설업자도 일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후 “비정상적 정상화 차원에서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동영 의원의 재질문에 대해 “열심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후분양 의무화에 대한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주무장관으로서 도입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으로 이해된다.

정동영 의원은 “기존 선분양제는 각종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의 주범이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퇴행적 제도로서 반드시 없애져야 할 적폐라는 점을 인식하고 후분양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국가대개혁을 풀기차게 주장해왔던 부분이 공공부문의 ‘후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김 후보자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 의견 내보

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전면 의무화이다.

정 의원이 주장 하는 바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부동산·주택정책의 핵심이며,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라는 것이다.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많은 규제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공공부문 후분양제 전면 의무화’는 기존 선분양제에 대한 전면 금지를

전제로 한다. 기존 선분양제는 각종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고 악의 뿌리이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퇴행적 제도이라는 것이다.

선분양제는 부실공사, 바가지 분양 등으로 재벌 계열 건설사 등 부동산 투기세력에게는 부의 축적 수단이 되지만,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다.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전면 의무화’는 비정상적인 고분양가와 기계부

재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현재 평당 아파트 분양가 4~5천만원, 평당 건축비 1천만원인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는 비정상을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적폐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무 도입을 약속했던 국토부 관리들이 여전히 ‘후분양제 전면 의무화’와 ‘원가공개 의무화’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가 어떠한 행정철학을 펼쳐나가는가에 따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삼락 꽃 소비촉진’

도, 정부세종청사서 행사 북분자 등 농산물도 판매

전북도와 농식품부가 꽃 소비촉진 일환으로 ‘삼락 꽃 소비촉진 행사’를 15일, 세종정부청사 광장에서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이번 ‘삼락 꽃 소비촉진 행사’는 올해 3번째 개최다. 전북도는 지난 3월과 6월에 꽃 소비촉진 행사를 도청내에서 개최한데 이어 이번에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세종정부청사에서 ‘삼락 꽃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도는 이번 꽃 소비촉진 행사와 더불어 전라북도의 특산품인 북분자·오디와 순창 매실도 함께 판매했다. 전북도의 특산품인 북분자·오디의 재배면적은 상당부분 줄었지만 여전히 전북이 북분자는 전국대비 70%, 오디는 60%를 점유하고 있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물국장은 “해마다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북분자, 오디, 매실에 대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꽃 소비촉진 행사와 더불어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故 백남기 농민 사인 수검

단풍미인소핑몰에서 펼쳐지는 한발 빠르게 만나는 건강한 여름!

신선함이 팡팡 터진다! <계절농산물 판매>

평나무에서 열리는 달콤한 열매
오디

무더운 여름 기운이 옥색
북분자

타일지 선정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

달고 맛있는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단풍미인소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읍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모든제품 100%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무료배송

네이버, 다음에서 단풍미인소핑몰을 검색하세요!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문의 전화 : 080-535-4345(무료), 063-532-4345

예약 및 배송
- 베리류 배송은 예약주문 순 수확 후 순차 발송, - 단풍미인씨없는 수박 1차 6. 12일, 2차 6. 29일 일괄배송